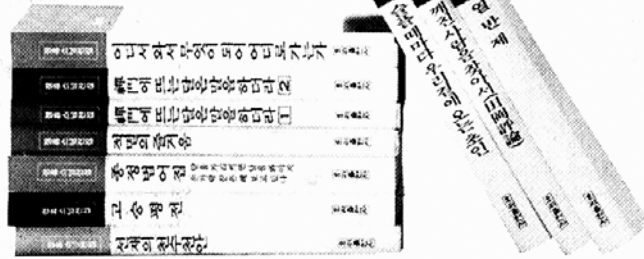


“문학수행 40년... 집착없이 살고 싶다”

‘중정범어집’ 등 전집 10권 완간한 정휴스님

선사행적 수행의 거울 인간의 향기 우레나는 깨달음의 길 전했으면



행의 체득하기 위해 문학을 시작했다.”

— 전집을 별도로 펴내게 된 이유는.

“나무들도 때가 되면 버릴 줄 안다. 수행자도 마찬가지이다. 문학을 하건, 포교를 하건, 수행을 하건 때가 되면 버려야 한다. 특히 수행자라면 버리고 또 버려서 집착 없는 본래의 모습을 드러내야 한다. 그것은 가버림이고 적멸이다. 이런 점에서 수행의 길이란 끊임없는 버림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나는 이제서야 그 동안 문학을 하면서 수없이 써온 글들이 집착임을 알게 됐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버리기 위해 전집 작업을 시작했다. 그렇다고 버림과 떠남도 함부로 해서 안된다. 잘못된 버림은 중생들의 해로움으로, 잘못된 떠남은 오히려 더 큰 집착으로 되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대로 버리고 떠나기 위해 그동안 써온 글들을 정리했다.

— 이 전집이 담고 있는 큰 주제는 어떤 것인가.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그 중에서 나는 오랫동안 선사들의 삶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 그들의 오도적 삶을 분석하고 체현하는 데 온

삶을 쏟았다. 선사들은 인간적 슬픔과 고뇌를 깨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비우는 일에 치열한 열정을 쏟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기 초극과 해탈을 위해 먹고 자는 일을 포기하고 자기 몸 속에서 살점이 빠져나가는 정진을 한 선사들... 이처럼 자기 고통의 근원을 깨닫는 일이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이 아닐까. 이러한 선사들의 수행담을 탐구하는 것은 내 수행의 삶을 관추하는 거울이기도 했다.

—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어록이 있다면.

“굳이 꼽으라면 <임제록>이다. ‘인간적 고뇌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나의 의문을 명확히 풀 수 있었기 때문이다. 번뇌가 있는 곳에 부처가 있다는 ‘번뇌가 곧 부처’, 부처, 조사, 보살 등에 위메이지 말하는 ‘살 불살조’, 그리고 일없는 사람이 참사람이라는 ‘무사진인’ 등의 가르침은 인간의 해탈 정신을 완벽하게 구현한 사상이다. 이처럼 일제 스님만큼 불교의 본질과 인간의 미명을 극명하게 파헤친 선사는 없다.

— 향후 스님의 과제는.

“전집이 40년 문학인생, 즉 정신적인 측면을 정리했다면, 이제는 육체를 버리는 일을 하고 싶다. 그리고 그리운 사람을 기다릴 것이다. 그 사람은 진정한 자아를 이룬 나의 다른 모습이다.”

10권의 전집을 손에 쥔 정휴 스님은 “깨침의 안목을 열려면 한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만인을 봐야 한다”며 “전집 완간의 의미를 집착 없는 삶을 살아갔다는 제2의 출가로 봐 달라”고 주문했다.

우리출판사에서 펴낸 정휴 스님의 전집은 수상집 <어디서 와서 무엇이 되어 어디로 가는가>, 사회문제를 불교적 시각에서 담은 칼럼집 <선재의 천수천안>을 비롯 <깨친 사람을 찾아서-전강명전>, <슬플 때마다 우리 곁에 오는 초인>, <적멸의 즐거움>, <열반제>, <선문에 뜨는 달은 말을 하더라 1·2>, <고승 평전>, <중정범어집> 등이다. 김중근 기자 (gamja@buddhopia.com)

대표적 승려문인 정휴 스님이 <중정범어집>을 마지막으로 ‘문학수행 40년’을 갈무리하는 전집 10권을 완간했다. 이 전집에는 그동안 여러 언론매체에 기고한 수필과 칼럼, 고승 평전, 소설 등이 담겨 있지만, 그 핵심은 정휴 스님 문학 행적과 옛 선사들의 수행 철학을 반영한다. 이것이 이 전집의 매력이다. 정휴 스님은 이 전집을 “인간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는 깨달음의 길에 환하게 열리는 구경의 길을 제시하고자 몸부림쳤던 40년 수행 생활의 총정리”라고 자랑했다. — 문학을 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지. “사람은 사랑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자비도량이다. 하지만 나는 동자승 때 자비의 도량에서 인간적인 체온을 느낄 수 없었다. 수행의 향기를 맡을 수 있는 수행자를 만나지 못했던 것이다. 수행자의 삶이 세속사람들과 다른 이유는 집착이 없는 삶이다. 이러한 수

이책의 한구절

■ “중생은 결과만 보고 그 원인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생의 원인이 내생의 결과가 됨을 알지 못한다. 만약 삶의 진실을 깨달아 인과에 눈을 뜨지 않으면 윤회하는 삶의 괴로움은 태어날 때마다 이어질 것이다.”
— 죽음과 환생 사이의 영혼을 제도하는 밀교와 정토의 가르침인 ‘중음신 제도법’. <죽음을 준비합시다>(우리), 역은이는 전남 보성 대원사 주지 현장스님. 값 6천원.

■ “게으름은 마음이 병든 상태이고, 무기력은 마음의 특성들이 병든 상태이다. 감각이 무딘 마음은 나무에 매달려 있는 박쥐나 막대기에 붙은 꿀만큼 둔하고, 너무 굳어서 퍼지지 않는 버터 덩어리처럼 둔하다. 게으름과 무기력을 막으려면, 선의 요소 중 하나인 ‘깊은 생각’을 해야 한다.”
— 부처님 생애와 불교의 핵심 교리, 그리고 주요경전까지 총망라한 불교입문서. <쉽게, 깊이 읽는 불교입문>(나라다 스님 지음, 주민황 옮김, 승), 값 8천9백원.

“중생은 결과만 보기 때문에 이생이 내생이 됨을 모른다”

■ “우리는 너무 바빠지고 너무 황급하게 달린 나머지 자신이 누구이고, 어떤 존재인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일을 잊고 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아름다움을 놓치고, 슬픔을 놓치고, 삶을 구성하고 있는 현실마저 놓친다.”
— 미국인 수도승이 쓴 티베트 불교의 지혜. <내 마음속 부처 깨우기>(리마 슈트야 다스 지음, 유은영 옮김, 창작시대), 값 9천원.

■ “정도법문은 믿음과 발원, 그리고 염불수행의 세 가지를 기본 요건으로 삼는다. 오직 진실한 믿음과 간절한 발원을 함께 갖춘 경우에만 비로소 독실한 염불수행이 된다. 재앙과 해악이 닥치면 정성스럽고 간절하지만, 조금이라도 평안해지면 느슨해지는 것이 범부 중생들의 공통된 병폐이다.”
— 염불수행으로 평생 교화에 헌신한 근세 중국의 고승 인광 스님의 염불 법문집. <화두농고 염불하세>(김지수 옮김, 불광), 값 1만2천원.

■ “불교조각은 인체조각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래상, 보살상, 각종 신중상 등은 모두 인체를 빌려 표현하고 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그 해법은 부처가 인격의 완성자라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즉 불상은 창조자도 아니며 절대적 존재도 아니다. 인격의 완성자일 뿐이다.”
— 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장을 역임한 홍윤식 교수가 지난 40여 년 동안 문화유산을 접하면서 보고 느낀 점을 쓴 칼럼집. <문화유산의 전통과 향기>(민족사), 값 8천5백원.

건강한 몸과 마음 가꾸는 섭생법

김남주 옮김 마음을 다스리는 간디의 건강철학

모한다스 간디가 마하트마 간디로 완성되기까지의 정신적 육체적 궤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마음을 다스리는 간디의 건강철학>(김남주 옮김, 프란)이 우리말로 나왔다. 의사가 되려다 해부에 대한 비수누교의 금기와 가문의 전통 때문에 변호사의 길을 선택했던 간디. 그에게 ‘인간의 건강’은 평생의 화두였다. 간디는 어떤 전제나 사실도 당연시하지 않았다. 특히 건강문제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실천과 연구, 그리고 실험을 통해서 검증한 뒤에야만 그 방법을 수용했다. 그리고 대중들에게 자신의 주장을 펼쳤다. 간디는 병이란 불결한 것이 몸의 특정 부분에 축적되었다는 자연의 경고이며 “그것은 인간의 부주의와 탐욕의 결과”라고

진단한다. 그리고 “병에 걸렸을 때 약과 의사에게만 매달리지 말고 병의 더러움을 자연으로 하여금 제거하도록 하는 게 지혜로운 처방”이라고 충고한다. 그러나 그는 건강하려면 치료보다도 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자신의 마음과 몸을 엄격하게 통제할 수 있는 사람만이 건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모두 4부로 구성된 이 책은 건강에 관한 간디의 다양한 체험 사례들이 실려 있다. 과일 식이요법, 채식 식이요법, 서구식 약을 대신하는 대체요법, 면역력을 높이는 자연 치유법 등을 비롯 아슈람 생활 속에서 체득한 간디식 섭생법을 의식주 전반에 걸쳐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또한 여러 식품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의학적인 진단도 함께 수록했다.



경전, 기도, 목언이 간디의 영혼을 만들었다면, 채식, 금욕, 절제, 단식은 간디의 몸을 단련시켰다고 할 수 있다. 간디가 어떻게 건강한 마음과 몸의 양식을 취할 수 있었는가를 체험적으로 밝힌 이 책은, 건강 지침서로서의 가치를 뛰어넘어 우리의 삶을 고양시키는 또 하나의 경전처럼 읽힌다. 값 1만원. 김중근 기자

아함경서 엮보는 불교의 미래

‘아함경전’ 4권 한갑진 지음



“새 천년 불교의 길은 아함경전 속에 있다.” 부처님 생애를 바르게 이해해야 불교가 바로 선다고 주장하는 한갑진 씨(한진출판 대표)가 <아함경전>(한진출판사)을 4권으로 번역해 내놓았다. 한 씨가 <아함경>을 번역하기 시작한 것은 10년 전 불교영화를 기획하기 위해 미얀마 등 남방불교권을 답사하면서부터다. 수행과 계율이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우리 나라의 불교의 현주소가 바로 선다고 믿었다. 이러한 결심을 한 그는 <아함경>을 우리말로 옮기기 시작했다. 그 동안 <부처님 생애>, <알기 쉬운 불경집> 등 10여 권의 불서를 펴냈지만, 경전을 번역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래서 국내의 한역 <아함경>, 영국 성전협회에서 출간한 <아함경>은 물론 남방불교의 경전을 조사하기 위해 78년과 82년 한 달간의 일정으로 학술조사도 다녀왔다. 한 씨는 이번 전집을 ‘아함경을 읽자’라는 취지로 사찰이나 신학단체 등에 무료로 배포시한다. (02-277-7000). 값 각권 1만 2천원. 김중근 기자

◇금주의 베스트블서 10 책방 역사신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이른 아침 나를 기억하라	틱 날 한	지혜의나무
2	일반승 수행일기	강 욱 구	동쪽나라
3	화두 농고 염불하세	인 광 불 광	불광
4	운명을 뛰어넘는 길	원 환 불 광	불광
5	산새 기쁜 특별한 식단이 있다	정 세 채	모 색
6	집착을 버리면 행복이 보인다	일 타	불교시대사
7	선방일기	지 허	역사야문
8	천수경 천수선암	혜 국 효 립	효림
9	마음을 비우면 세상이 보인다	달라 리라	문 이 당
10	한국역대 고승의 다시	무 산 명 상	명상

도서 안내: (02)737-0695

다담선(茶湛禪)을 알고 다도(茶道)를 하는가

“다담선의 선맥(禪脈)을 밝힌다”

다담선이란 차를 마시면서 선수행을 하는 것으로 고려의 대각 국사 의천 스님이 9백여 년 전 우리 나라에 들여왔다

일천 년 동안 맥을 이어 내려온 26분의 역대 조사 스님들께서 남겨 놓으신 다담선을 이번에 실선당 무산 스님이 십수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 책으로 세상에 내놓는다 하니 참으로 큰 불사(佛事) 기쁨입니다. — 대한 불교 조계종 백양사 고불총림 방장 서용

중문(宗門)과 세간에 있어 역대 조사 스님들께서 남기신 다담도와 선의 진수인 다시(茶詩)를 한 곳에 모아 방대한 책으로 발간하게 됨은 중문의 대불사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 대한 불교 조계종 통도사 영축총림 방장 월하

- 고승들이 중생에 전하는 첫잔 속 깨달음의 향기들 — 조선일보
- 우리나라 다담선의 맥을 처음으로 정리해낸 보고서이자 다담선의 부흥을 알리는 선언문 — 연합뉴스
- 끊어졌던 다담선의 선맥을 정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끄는 책 — 국제신문

“ 고려의 대각 국사로부터 조선 말기 범해 선사까지 ”

한국역대 고승高僧의 茶詩

실선당 무산 스님 지음
신국민 양정/272쪽
값 15,000원

명상 시선 11

그리운 나에게

한 출가 수행자의 고뇌와 그리움, 그리고 중생과 부처에 대한 끝없는 사랑

삶은 사랑과 함께 시작해서 죽음과 함께 끝난다. 죽음이 올 때 사랑의 에너지는 마지막 한잔 승부를 겨룬다. 그것은 확터오르는 불꽃이 된다. 그 섬광은 그대를 다음 생각으로 이끌고 수레바퀴는 다시돌기 시작한다. 시집 전편에 등장하는 ‘그대님 다화(茶花)’는 진정 누구인가.

그대 님 다화
홍조 띠 수줍음이
노을처럼 타고 있네.
민희의 시공(時空) 사이
입술마저 타들어간 다화
당신의 숨결 하나로
나 설선
넋을 놓고 천년 살리다.
순간이 영원으로
이어질 수 없다면야
화석으로 굳어진들
나는 후회하지 않으리다.
그대 님 다화의
눈빛 하나로
마음놓고 만년 살리다.
(‘천만년 함께 가는 날, 전문’)

실선당 무산 스님 지음
변형 4×6만/96쪽
값 5,000원